

동시대 무용, '무용 이후'를 선언하다

윤지현*

D. Andersson, M. Edvarssden, and M. Spångberg(Eds.)(2017), *Post-Dance*(Stockholm: MDT).¹⁾

예술장르 사이, 사회 제분야 사이, 예술과 기술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진 시대변화를 반영한 컨템포러리댄스 작업들이 있다. 안무가와 무용가로 알려진 이들의 작업에서 우리에게 익숙하던 무용공연이 해체되고, 근대적 무용미학이 전복되는 현상이 드물지 않다. 무대도, 관객도, 서사는 물론 신체와 움직임마저 떼어낸 급진적인 사례가 목도되기도 한다. 무용공연의 핵심적 구성요소라 할 훈련된 신체와 움직임을 배제하는 예술실험이 '무용'으로 경험된다. 기존의 무용미학을 부정하는 새로운 무용이, 국내에서도 1990년대 이미 등장했고, 2000년대 초 이후로는 부쩍 증가한 듯하다.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재현적 스펙터클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온 '무용 이후의 무용 또는 무용이 아닌 무용(포스트댄스, post dance)'이 국내외 컨템포러리댄스의 주제어로, 동시대 무용계의 관심의제로 포착되고 있다.

비어있는 용어, 포스트댄스(post dance)

포스트댄스는 2015년 가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무용분야 컨퍼런스²⁾의 제호이다. 또한 컨퍼런스 참여자들이 발표하고 취합했던 컨템포러리댄스에 관한 논의와 입장을 모아 엮어낸 2017년판 단행본의 제목이기도 하다. 용어로서 '포스트댄스'는 학술용어로 정제된 상태는 아니다. 컨퍼런스를 기획했던 스웨덴 MDT의 단절 안데르손(Danjel Andersson) 전(前)예술감독은 이 용어를 '오픈소스 개념(open-source concept)³⁾이자 채워야 할 '그릇(container)⁴⁾이라고 소개한다. 스톡홀름 기반 안무가인 마르텡 스팅베르그(Mårten Spångberg)도 "아직까지 포스트댄스는 비어있는 캔이지만 매력적인 향기가 나도록 적실한 무용으로 응용하거나 채울"⁵⁾ 것을 선언한다. 용어로서 포스트댄스의 이러한 상

* 댄스&미디어연구소 소장, jhydance@gmail.com

1) 포스트댄스 컨퍼런스를 주도했던 단절 안데르손과 안무가인 마르텡 스팅베르그, 메테 에드바르첸이 편집하고, MDT가 펴낸 인쇄본 2000부는 소진되었으며, 현재는 pdf파일이 인터넷에 유통되고 있다.

2) 유럽과 북미의 안무가와 공연예술 이론가, 기획자 등 300여명이 2015년 10월 14일부터 16일, 스톡홀름 MDT에서 개최된 첫 컨퍼런스에 참석했다. *Postdance-MDT*, <https://mdtsthlm.se/archive/175/, 2019. 10. 20.>.

3) D. Andersson(2017), I Had a Dream, D. Andersson, M. Edvarssden, and M. Spångberg(Eds.), *Post-Dance*(Stockholm: MDT), p.13.

4) Ibid., p.15.

태는, 2019년 10월에도 여전히 유사하게 재론된다.⁶⁾ 포스트댄스는 그간 다양한 양태의 컨템포러리댄스 작업들을 아우르는 범주 또는 플랫폼의 필요에서 제안되었고, 누가, 어떻게, 무엇을 실천하고 채울지를 논하는 동시대무용계의 주제가 되었다.

포스트댄스의 ‘post-’라는 접두사는 흔히 ‘- 이후의’를 의미하나 예술사나 철학에서는 자주 ‘-이 아닌’의 함의로 쓰인다.⁷⁾ 이들 함의에 따르면 포스트댄스는 ‘무용 이후의’ 무용이자 ‘무용이 아닌’ 무용이 된다. ‘-이 아닌’이라는 부정은 동시대 무용실험에 보이는 무용 장르의 위기나 전환적 상황을 설명하는 듯하다. 실험적이고 복합적인 동시대 무용에서 감지되어오던 근대적 무용공연에 대한 부정과 해체를 부각하는 것으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또한 전통적인 무용공연과 대안적인 미래 무용과의 충돌을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컨퍼런스의 기획과 용어 선택을 주도했던 안데르손은, “전통적인 무용의 개념과 우리가 실제 보고, 경험하고, 지원받는 무용 사이의 간극을 설명해야 했다”⁸⁾고 컨퍼런스의 필요성과 의의를 밝힌다. 용어로서 ‘포스트댄스’는 지난 50년 이상 존재했으되 주목받지 못했던 무용분야 예술실험을 한 자리에 모음으로써 그 대상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본격적인 예술담론을 시작하는 선언이 된다.

실제로 보고, 경험하고, 지원받는 동시대 무용

포스트댄스 컨퍼런스와 저술에 참여한 세계적 안무가들과 공연예술학자의 다수는 놀랍게도 국내에도 익히 알려진 이들이다. 이로 인해 비주류예술로 치부되던 실험적 복합적인 무용작업들이 동시대예술담론의 중심에 가까이 와 있었다는 생각에 이른다. 무용의 정치성을 근대 자본주의적 속성인 움직임과 연결했던, 미국 뉴욕대학 교수, 안드레 레페키(André Lepecki), ‘춤 쓰기’를 통해 음악구조와 같은 스킵어(score)를 안무의 틀로 제시해온 벨기에 P.A.R.T.S 초빙교수이자 영국 새들러스웰즈 극장의 프로그램 매니저 조나단 버로우(Jonathan Burrow), 독일의 철학자이자 동시대예술 이론가로 노동자로서 무용가와 무용인의 복지를 주창해온 보야나 쿤스트(Bojana Kunst), 브뤼셀 기반으로 활동하는 공연예술 이론가이자 드라마터그인 보야나 스페이지(Bojana Cvejić), 프랑스 철학자 자크 랑시에르를 동시대 예술담론에 깊이 연루되는 계기를 주었고, 스스로도 예술의 동시대성 담론을 실천해온 스펡베르그, 노르웨이 출신 안무가인 메테 에드바르첸(Mette Edvardsen) 등 유럽과 북미의 공연예술분야 이론가와 안무가, 비평가, 기획자와 드라마투르그 등 20여 명이 발표한 22편의 글이 이 책에 실려 있다.

변방에 머물던 이들 작업들이 무용분야 관심주체의 중심으로 시나브로 이동해왔음을 실감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 컨퍼런스의 흥행이다. 컨퍼런스 참여자 공모를 시작하자 수월하게 300여 명의 예술가가 참석정원을 채웠다는 후문만이 아니다.⁹⁾ 컨퍼런스는 일회적 행사에 그치지 않았다. 논의를 확대하

5) M. Spångberg(2017), Post dance, an Advocacy, D. Andersson, M. Edvardsen, and M. Spångberg(Eds.), *Post-Dance*(Stockholm: MDT), p.351.

6) 2015년과 2019년 포스트댄스 컨퍼런스의 홈페이지나 관련 세미나 자료 또는 유포된 영상에서 이 용어의 쓰임과 위상에 대한 의견은 유사하게 재론된다. *POST-DANCE Dublin talk by Amanda Øiestad Nilsen, with introduction by Sara Muthi*, <<https://www.youtube.com/watch?v=jqEb3OYv8gA>, 2020. 3. 10.>.

7) J. Wikstrom(2017), Notes on Post-Dance, D. Andersson, M. Edvardsen, and M. Spångberg(Eds.), *Post-Dance*(Stockholm: MDT), p.148.

8) D. Andersson(2017), p.15.

9) *Postdance-ING-MDT*, <<https://mdtsthlm.se/archive/6671/>, 2019. 10. 20.>.

는 십여 회의 후속세미나가 유럽과 미국 등지에서 개최되었고, 이들 논의는 관련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열람횟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흥행의 탄력으로 2017년 단행본의 출간과 2019년 postdance-ING 제하의 제2차 컨퍼런스¹⁰⁾가 이어질 수 있었다. 이는 컨템포러리댄스 예술계의 다수가 ‘실제로 보고, 경험하고, 지원받았던’ 공연예술로서 무용을 본격적으로 다룰 플랫폼을 기다려왔음을 보여준다.

유럽과 북미의 공연예술분야 안무가와 연구자 등이 참여한, Post-Dance의 전체적 편집과 체계는, 그 형식과 분량에서 균형과는 거리가 있다. 글들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당대 무용현장의 현상과 상황에 공히 시선을 두었다는 점에서는 일치한다. 그러나 각기 속한 현장에서의 목격담 또는 경험담을 풀어내는 주제들의 반응은 다양하고, 그 입장을 구성한 상태는 성글어 보인다. 학술적 논의와 과학적 용어를 차용하여 현상에 접근한 글과 은유적 표현과 일화적 묘사만으로도 설득적인 글들이 섞여 있다. 컨템포러리댄스의 경험과 입장을 날것으로 모으려했던 컨퍼런스의 의도는 이 책의 구성적 특징으로 관철된 듯하다. 도발적 논의와 용어의 사용, 조탁하지 않은 일화, 균질적이지 않은 구성이 특별한 이 책은 2017년 동시대 무용에 대한 ‘살아있어 여전히 유효한’ 현장보고서이다.

용어를 채우는 포스트댄스의 과제

컨퍼런스의 기초연설을 맡은 버로우는 1960년대 저드슨처치 그룹의 활동에서부터 2010년대까지 동시대 유럽과 북미의 무용예술 현장에서의 목격담과 경험담을 담담히 풀어낸다. 그는 15만년동안 거의 변하지 않은 ‘몸의 기억’을 화두로 던지며, 지난 50년간의 무용이 포스트모던댄스에서 컨템포러리댄스로, 미니멀리즘적인 춤과 갤러리에서의 춤, 개념무용, 무용의 정치성을 거쳐 포스트안무의 영역(post choreographic field)¹¹⁾ 등으로 새로운 시도와 예술실천을 거듭해왔음을 회고한다. 시장화된 공연예술현장의 파괴적인 예술생산 기제 속에서 ‘포스트댄스’ 용어의 출현이 동시대무용계에 던지는 도전 과제란, ‘우리가 스치고, 우리를 스친 것들을 소중히 하고, 향후 50년을 위한 우리만의 의제를 만들기’¹²⁾라고 주장한다. 이어 ‘몸의 역사를 존중하고, 각 세대에서 재발견되는 혼동과 인본주의를 위한 틈새를 남기기’를 제안한다.¹³⁾

스팽베르그는 서문과 ‘포스트댄스 선언’ 등 두 편의 글을 실었다. 서문에서 그는 포스트댄스 컨퍼런스는 ‘기존의 낡은 가치를 위한 반동적인 몸짓을 통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태도’¹⁴⁾ 무용과 안무를 위해 실천한 행사라고 의미를 정리한다. 책이 다루는 세 개의 주제로 포스트댄스와 성/포르노, 제도적 정책 등을 제시하고, 동시대 무용을 위한 새로운 질문하기와 새로운 답하기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다. 책의 마지막 장인 포스트댄스 선언에서는 포스트댄스는 ‘그 자체로 무용에 대한 선언, 곧 무용이 우리 사회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현실에서 능동적인 영역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부여하는 선언’¹⁵⁾이

10) Postdance-ING 컨퍼런스는 2019년 10월 23일부터 25일, 스톡홀름 MDT에서 개최되었다.

Postdance-ING-MDT, <<https://mdtsthlm.se/archive/6671/>, 2019. 10. 20.>.

11) J. Burrows(2017), Keynote address for the Postdance Conference in Stockholm, D. Andersson, M. Edvarssden, and M. Spångberg(Eds.), *Post-Dance*(Stockholm: MDT), p.94.

12) Ibid., p.93.

13) Ibid., pp.93-94.

14) M. Spångberg(2017), Introduction, D. Andersson, M. Edvarssden, and M. Spångberg(Eds.), *Post-Dance* (Stockholm: MDT), p.22.

15) M. Spångberg(2017), Post-Dance, An Advocacy, D. Andersson, M. Edvarssden, and M. Spångberg(Eds.), *Post-Dance*(Stockholm: MDT), p.352.

라고 강조한다. 이어 포스트댄스는 ‘춤과 안무가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자율성을 주장하고 성공하는 순간’¹⁶⁾이 되는 것임을 강조했다.

레페키는 연구 중인 미완의 논문을 발표했다. 그는 ‘개인의 행동을 통제하는 원칙이 정당화되기 시작했었던 17, 18세기 새로운 유물론의 산물’¹⁷⁾로 부당한 포르노그래피를 코레오그래피와 비교한다. 근대적 합리성의 관점에서 “포르노그래피와 성의 관계는 안무와 춤의 관계와 같다. 성과 춤의 관계는 포르노그래피와 안무의 관계와 같다”¹⁸⁾고 주장한다. ‘신체의 배치라든가 묘사가 가능한 상호작용이 과도하게 보이도록 만들기’¹⁹⁾ 등 포르노그래피의 중심에 안무적 성격이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정상적인 춤동과 실용주의적 계통에 있지만, 절대한계를 넘어서도 멈추지 않는 움직임, 과잉된 신체움직임을 통해 통치력을 위협에 빠뜨린다고 관찰한다.²⁰⁾

쿤스트는 예술가 노동이 자본주의 노동의 상품화와 전유에 저항할 수 있는지 묻는다. ‘유연한 노동 시간, 사적 생활과 노동의 구분이 없어지는 경향, 개인에 대한 높은 투자, 협업 가치의 강조 등의 변화는 동시대 모두가 예술가처럼 노동하는’²¹⁾ 상황임을 환기한다. 그는 무용에 대해 ‘분투하고 반짝이지만 여전히 잉여적이고 불필요한 노동’²²⁾이라는 점에서 저항의 잠재력을 기대한다.

조세핀 위스트롬(Josephine Wickström)은 포스트댄스에 두 개의 가능한 길을 제시한다. 하나는 시간과 흥행을 위한 전시기획의 프레임에 머물며 빈 용어로 남거나, 다른 하나는 자기비판적 행위로서 춤의 현재에 대해 생각하고 행동하는 명령이 되는 것이다. 후자라면 포스트댄스는 생각하기와 별개의 것이 될 수 없으며, 무용에 대한 논의에 생산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²³⁾

국내 무용현장에도 ‘동시대 무용’과 ‘컨템포러리 안무 또는 컨템포러리 코레오그래피(contemporary choreography)’의 용어가 혼용되고 있다. 여기에 ‘확장된 안무(expanded choreography)’라든가 ‘춤을 넘어선 안무’ 등 용어의 응용은 우리 내부의 ‘이후의 무용’에 대한 상상과 실천을 보여준다. Post-Dance는 2020년 귀로에 선 한국의 동시대 무용에도 새로운 질문하기와 답 찾기를 실천할 그릇 하나 내어준다. 우리는 무엇을 채울 것인가?

16) Ibid., p.391.

17) A. Lepecki(2017), *Choreography and Pornography*, D. Andersson, M. Edvarsdson, and M. Spångberg(Eds.), *Post-Dance*(Stockholm: MDT), pp.72-73.

18) Ibid., p.81.

19) Ibid., p.77.

20) Ibid., p.72.

21) B. Kunst(2017), *Some Thoughts on the Labour of a Dancer*, D. Andersson, M. Edvarsdson, and M. Spångberg(Eds.), *Post-Dance*(Stockholm: MDT), p.116.

22) Ibid., p.129.

23) J. Wickström(2017), p.155.

■ 참고문헌

Andersson D., M. Edvarsdsen, and M. Spångberg(Eds.)(2017). *Post-Dance*. Stockholm: MDT.

postdance-MDT. <<https://mdtsthlm.se/archive/175/>, 2019. 10. 20.>.

postdance-ING-MDT. <<https://mdtsthlm.se/archive/6671/>, 2019. 10. 20.>.

POST-DANCE Dublin talk by Amanda Øiestad Nilsen, with introduction by Sara Muthi. <<https://www.youtube.com/watch?v=jqEb3OYv8gA>, 2020. 3. 10.>.